

## 『귀납』: 활발한 철학적 논의로 비약하기

최 훈\*

『과학철학』은 2014년의 17권부터 기존의 두 호 발간에서 세 호 발간 체제로 바꾸면서 특별한 기획을 마련하였다. 매 권의 2호는 특집논문을 기획하고, 3호는 북심포지엄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이 기획에 따라 지난 17권 2호에서는 홍성욱 교수의 객원 편집으로 ‘과학철학과 STS’라는 주제로 6편의 논문을 실었다. 그리고 이번 호에서는 첫 번째 북심포지엄으로 전영삼 박사의 『귀납: 우리는 언제 비약할 수 있는가』(아카넷, 2013. 이하 『귀납』)를 그 대상 도서로 선정하여 3명의 토론논문과 저자의 답변을 실게 되었다. 한국과학철학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에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이 북심포지엄을 위해 별도의 세션을 마련하여 이번 호의 투고자들이 논문을 발표하였고 저자의 답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다.<sup>1)</sup> 투고자들과 저자는 논문들을 다시 고쳐 투고하고 심사를 받아 이번 호에 게재하게 되었다. 한국과학철학회와 『과학철학』은 앞으로 정기학술대회에서 북심포지엄 세션 발표와 매 권의 3호 투고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들이 논문 위주로 교수 임용과 평가를 하는 시스템에서는 연구자들이 저서보다는 논문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저서는 논문에 비해 긴 호흡으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담을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귀납』의 저자도 말하고 있는 “관련된 논의를 가장 기초적인 데서부터 위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방식”<sup>2)</sup>을 논문

---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양과정, choih@kangwon.ac.kr.

1)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이번 호의 투고자들 이외에 이영의 교수의 「귀납적 비약: 흄, 포퍼, 그리고 베이즈」도 발표되었으나 편집인의 직책 때문에 이번 호에는 투고하지 않았다.

에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학에서는 주된 학술 담론이 논문보다는 저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학계의 오랜 전통이다. 아주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논문과 저서를 각각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에 비교해 볼 수 있겠다. 패스트푸드가 범람하는 시대에 슬로푸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지만 건강과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느리고 천천히 곱씹은 사유의 결과가 저서로 나올 때 깊이 있는 사상의 완성과 학문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학계의 사정 때문에 저서는 논문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저술을 지원하는 사업(저술출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귀납』도 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출간된 저서이다. 이 사업의 성과로 훌륭한 저서들이 많이 생산되어 학계를 풍성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서에 대해 토론 논문을 붙이고 답변을 받는 과정을 도입한 것은 저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동시에 학문적인 토론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이다. 기존의 학술 논문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할 때 주로 외국 학자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련 주제에서 국내 학자의 연구과 있는데도 그런 경향이 반복되다 보니 연구력이 축적되지 않고 연구가 항상 새롭게 시작된다. 우리가 ‘한국 철학’이라고 말할 때는 꼭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 놓은 철학적 유산을 연구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철학적 논의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쟁거리로 삼고 생생한 철학적 담론이 된다면 그것 역시 한국 철학이라고 부르기엔 손색이 없다.<sup>3)</sup> 그러기 위해서는 저서가 됐든 논문이 됐든 국내 학자들끼리의 학술 토론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 『과학철학』에서는 이런 취지로 그간 국내 학자의 논문에 대한 비평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여러 편의 토론 논문이 실렸다. 이번 북심포지엄은 그런 취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없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2) 『귀납』, p. 23.

3) ‘한국 철학’의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는 심재룡 외, 『한국에서 철학하는 자세들: 철학연구 방법론의 한국적 모색』(집문당, 1987)을 보라.

이나 과학에서 추론을 할 수 없다. 그만큼 귀납은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귀납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이고, 이 북심포지엄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상호 토론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귀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흄이 제기한 대로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의 예측으로 ‘비약’할 때 그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이다. 전영삼 박사도 『귀납』의 부제이기도 한 “우리는 언제 비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 1) 하나의 귀납 논증에서 그 전제(증거)와 결론(가설) 사이의 귀납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제시.
- 2)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과연 어느 정도에서 (또는 어떤 기준으로) 문제의 귀납적 가설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 해결.<sup>4)</sup>

4부로 구성된 『귀납』은 먼저 1부에서 “우리는 언제 비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적 틀을 마련한다. 그리고 2부와 3부에서는 위 두 가지 과제 중 각각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를 논의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2부와 3부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는 언제 비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세 투고자들은 모두 『귀납』이 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 다른 세 가지 견해, 곧 베이즈주의, 빈도주의, 우도주의를 자세히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견해들이 양립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어 단일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논증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여영서 교수는 이 중 가설 채택과 관련하여 빈도주의와 베이즈주의를 결합하는 시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대답이 내려져야 함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연역 패러다임을 넘어서 귀납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박일호 교수는 『귀납』과 관련해서 세 가지 비판적인 평가를 한다. 첫째, 『귀납』에서는 귀납 논리와 방법론이 구분되는데 이런 구분은 귀납 특

---

4) 『귀납』, p. 21.

유의 것이 아니라 연역에서도 구분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둘째, 『귀납』은 우도의 객관성이 사전확률의 주관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데, 제프리 조건화가 우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셋째는 여영서 교수도 논의했던, 가설 채택과 관련한 빈도주의와 베이즈주의의 결합과 관련해서 그 시도는 흥미롭고 독창적이지만 좀 더 정교히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한승 교수는 『귀납』이 위에서 말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 다른 세 가지 견해들을 의사 결정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려 했다는 점이 흥미롭고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도는 의도와 달리 성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전영삼 박사는 토론논문들의 논평을 “귀납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마치한 편의 파노라마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말한다. 이것은 위에서 강조했듯이 여러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저서라는 형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저자는 논평들에 대한 답변 논문에서 그 여러 문제에 대해 각각, 또는 공통의 답변을 내 놓고 있다. 토론자와 저자 모두 동의하고 있는 바이지만, 이 북심포지엄이 『귀납』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더 활발하고 의미 있는 논의로 ‘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끝으로 북심포지엄 기획을 적극 지지해준 이영의 편집인과, 투고와 답변을 해 주신 논평자들과 저자에게 감사드린다.